



날으는 홍범도장군

제3호

겨울

2014. 12. 1

사단법인 여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110-032)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10길 17(신교동) 발행인: 이종찬 편집인: 홍성덕
TEL: 02)734-8851~2 FAX: 02)722-0251 http://www.hongbumdo.org



〈임원 내빈 기념〉

홍범도장군 순국71주기 추모식 엄숙하게 개최

학술회의 “청산리전투에서의 홍 장군의 주도적 역할” 실증적으로 접근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이사장 이종찬)에서는 지난 10월 24일 오후,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홍범도장군 순국71주기일을 맞아 추모식 및 학술회의를 엄숙하게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는 보훈관련단체 임원과 기념사업회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진지하게 진행되었으며, 국가보훈처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후원하였다.

이날 기념식은 문준진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하여, 이종찬 이사장의 기념사와 문태선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의 기념사가 있었고, 이어서 기념사업회에서 초청한 중국 수남촌 라철룡 총장의 추모사가 있었다. 이종찬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하여 홍범도장군의 무장투쟁 업적을 추모하고, “근래에 들어와 독립운동을 부인하려고 하는 일부 극우세력이 광복절을 건국 절로 바꾸려는 책동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분쇄하기 위하여 홍범도

장군의 투쟁정신으로 다시 뭉치자고 제의하였다. 한편 라철룡 총장은 추모사에서 “홍범도장군은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의 최고의 영웅이며, 민족의 동질성을 일깨워주는 표상”이라고 추모하였다.

이어 개최된 학술회의는 “홍범도장군의 의병투쟁과 청산리전투”를 주제로 하여 장세운 박사(동북아역사재단 연구원) 사회로 진행되었다. 제1주제인 “홍범도장군의 초기 의병투쟁과 항일무장투쟁에 미치는 영향”은 심철기 박사(연세대 역사문화학과 연구교수)가 발표하고, 제2주제인 “청산리전투에서 홍범도장군의 역할”은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이 발표하였다(상세내용 4, 5면 참조). 종합토론은 김상기 교수(충남대 국사학과)가 담당하고 신호승 연구원(전쟁과평화연구소 연구원)과 홍윤정 박사(심산기념사업회 학예실장)가 지정토론을 벌였다.



봉오동전투 현장 수남 촌장 일행, 이종찬 이사장 방문 내년 6월, 봉오동전투 전승기념행사 현지 개최 협의



〈홍성덕 상임이사 연석회의 주제〉

지난 10월 24일 홍범도장군 순국71주기 추모식에 공식 초청되어 방문한 라철룡 수남촌장과 박경식 연변조선족기업회 상근 부회장은 우당기념관으로 이종찬 이사장을 방문하고 환담을 나누었다. 이어 함께 자리했던 홍성덕 상임이사 주재로 황원섭 이사, 문준진 사무총장, 박재옥국장과 연석회의를 갖고 현안문제를 협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봉오동전투 전승행사를 봉오동 현지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중국에 홍범도기념사업회 조직문제와 홍범도장군 기념관 건립문제도 장기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라촌장 일행은 10월 25일에는 문준진총장 안내로 독립기념관과 아산 현충사, 26 일에는 이상현국장 안내로 전쟁기념관과 윤동주문학관을 관람하였다.

곽승지 연변대 교수 내방 봉오동 현지 전승기념행사 협의

내년도 봉오동전투 전승95주년기념행사 추진관계로 곽승지 연변 과학기술대학 교수가 11월 5일 우당기념관을 방문하여 홍성덕 상임 이사, 황원섭 이사와 함께 회동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협의하였다. 우선 기념행사 주최는 홍범도 기념사업회와 중국조선족 주민단체에서 공동 주관하고, 국가보훈처와 연변조선족자치주 또는 도문시가 후원하는 형식을 갖추도록 의견을 모았다.

또한 행사 날짜는 전승기념일인 6월 7일이 일요일임으로 이를 앞 당겨 6월 5일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행사 장소는 수남촌 전투현장으로 하며, 조선족 동포들이 많이 참여하여 축제 분위기에서 잔치를 벌이도록 협의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명실상부 하게 95주년 만에 처음 개최되는 공식적인 행사가 우리 민족의 대동 축제가 되도록 하자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한편 기념사업회에서는 6월 5일에 출발하여 3박4일 일정으로 전승행사에 참석한 후, 봉오동, 청산리전투 현장과 독립운동 유적지 답사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곽승지 연변과기대 교수(중앙)〉

기념사업회, 공익성 기부금 단체로 지정하여 소득세 감면 혜택

기획재정부에서는 9월 30일자 관보를 통하여 홍범도 장군기념사업회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하였다. 이에 따라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소득세법과 법인소득세법에 따라 경비로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성금을 납부한 이종찬 이사장(150만원), 홍헌일 감사(150만원), 김유진 고문(10만원), 홍성덕 이사(180만원), 손양호 이사(100만원), 류병균 이사

(100만원), 홍성중 이사(100만원), 김희일 이사(100만원), 이영철 이사(100만원), 황원섭 이사(30만원), 진익산 이사(100만원), 문준진 사무총장(15만), 송근태(100만원), 홍이표 (100만원), 홍일량(10만원) 회원 등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사)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신한은행 100-027-188760

여천 홍범도 장군 71주기 추모식 및 학술회의



〈여천 홍범도 장군 추모식〉



〈이종찬 이사장 기념사〉



〈문태선 서울특별시문화유산정책관 추모사〉



〈라철룡 중국 수남촌 촌장 헌화〉



〈학술회의 발표자 및 토론자〉



〈우측부터 김상기 교수, 심철기 박사, 신효승 연구원〉

〈홍범도장군학술회의 제1주제 : 홍범도의 초기의병이 항일무장투쟁에 미친 영향〉

홍범도 의병은 을미의병부터 시작, 항일투쟁의 기반이 되었다.

심 철 기(연세대학교 역사문화학과 연구교수)



홍범도장군에 대한 연구는 1910년 강제 합병이후 만주지역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 등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이 중심이 되어, 초기 의병활동은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무장독립투쟁의 기반이 된 초기 의병활동을 규명하는 연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홍범도는 1895년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의 소식을 듣고 항일의병투쟁을 결심하게 된다. 강원도 회양 단발령에서 의병동지 김수협을 만나 의병봉기를 결의하고, 그해 내무아문에서 군수물자와 총 칼 탄환 화약 등은 관가의 포수와 군노 이외는 소지할 수 없도록 훈시함에 따라 지방 포수들의 생활기반이 무너지고 일본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의병활동에 참여하는 계기가 조성되었다.

홍범도는 1896년 강원도와 함경도의 관문인 철령으로 이동, 잠복하면서 수차례 이동 중인 일본군을 습격하여 소총, 탄환 등 전리품을 노획하고, 산포수를 중심으로 14명의 소규모 의병부대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아관파천으로 친러정부가 출범하면서 의병해산을 권유하고 칙령 제28호로 지방 각 군에 포수대를 설치하게 되어 의병활동이 침체되었다. 홍범도의 소규모 의병은 유인석의 의병부대와 합진하여 대규모로 활동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홍범도는 을미의병 이후 함경도 북청으로 이동하여 산

포수 생활을 하면서 산포수조합인 포연대의 대장으로 선출되었다.

홍범도가 다시 의병에 투신한 것은 1907년 일제에 의하여 광무황제가 강제 퇴위되고 군대해산으로 일어난 의병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홍범도가 활동하던 북청에서는 일본군에 의해 북청진위대가 해산되고, “총포 화약류 단속법”이 강제 시행되어 산포수들에게 크게 타격을 주어 의병활동의 기반이 조성되었다.

홍범도 의병은 친일단체인 일진회 뿐 아니라 한국침략의 첩병인 헌병분견소, 경찰주재소, 우편전신취급소 등을 주 공격대상으로 삼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홍범도 의병의 첫 전투는 1907년 11월 후치령에서 있었던 전투이다. 압수한 총포를 북청으로 수송하던 일본군을 후치령에서 매복하다가 섬멸하고 장비를 노획하여 무장을 강화하였다. 다음날 일본군 아라다니 소위와 병사들을 저격하여 무기를 노획하였다. 이에 당황한 일본군은 북청수비대 2개 소대 57명과 순검 헌병 9명을 후치령에 급파하지만 홍범도는 유리한 지형을 선점하여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함경도 지방의 의병활동은 1908년 중반 일제의 의병에 대한 끈질긴 “토벌”과 귀순공작, 의병을 지원한 주민들에 대한 야만적 탄압으로 연해주에서 이범윤의 원조로 안중근과 연합하려 했으나, 안중근이 일본군의 기습으로 참패함에 따라 실현되지 못하고, 연해주에서 추진하던 13도의군에 참여하여 독립군으로 활동하였다.

홍범도 의병의 성과는 포수들만이 할 수 있는 정확한 사격술과 대담한 작전, 그리고 일정한 성과를 거둔 뒤에 신속하게 이동하는 기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우리 독립군의 전술적 기초가 되어 1920년대 초 독립군의 빛나는 전승의 밑거름이 되었다.

홍범도 의병의 특징은 자체 무기제작과 군자금 모금활동을 들 수 있으며, 홍범도는 군인으로 교육을 받아 군사 지식과 군대 운용에 대한 능력이 뛰어났고, 진위대 병사들이 참여하여 전술 구사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근대적 군대 체제를 갖춘 독립군으로 발전하는 전 단계가 되었다.

〈홍범도장군학술회의 제2주제: 청산리전투에서의 홍범도장군의 역할〉

청산리전투의 주역은 홍범도장군이었다.

김 삼 웅(전 독립기념관장)



한국독립전쟁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전승은 봉오동전투, 청산리전투, 대전사령전투 등 3대첩이다. 3대첩이 있었기에 우리는 부끄러운 식민지시대를 씻을 수 있었고, 향후 외적의 침략에 맞설 수 있는 민족적 결기(決起)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봉오동전투에서 참패한 일제는 이를 설욕하고자, 소위 “간도지방 불령선인 초토계획”을 강화하여 독립군에 대한 섬멸작전을 준비하였다. 일제는 만주군벌 장작립과 약조하고 독립군을 토벌하도록 하여 맹부덕(孟富德) 사령관에게 출동명령을 내렸다. 홍범도는 이와 같은 정보를 입수하고 은밀히 협상을 벌여 중국의 입장을 고려, 독립군 부대와 함께 백두산으로 이동하였다.

일제는 1920년 10월 14일 간도 출병을 선언하고 제 19사단장을 사령관으로 각 사단에서 차출한 병력 2만 5천명을 토벌군으로 한국 독립군 학살을 명하였다. 당시 청산리와 어랑촌으로 이동한 독립군은 대한독립군 300명, 국민회군 250명, 대한신민단 200명, 의군부 60명, 의민단 100명, 한민회단 200명 등 1,200명으로 홍범도를 사령관으로 독립군 연합부대를 편성하였다. 이어 김좌진의 북로군정서군도 합세하여 홍범도의 지휘 하에 군사통일과 작전을 결의하였다.

역사적인 청산리 전쟁은 10월 20일을 기하여 일본군 야마다연대가 북로군정서군의 퇴로를 차단하고 청산리

계곡으로 진격하자 21일 백운평 일대 매복 지점에서 일본군을 격퇴하고 100여명을 사살하여 첫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두 번째 전투는 완구구에서 홍범도 연합부대가 21일부터 22일 새벽까지 일본군동(東)지대본대와 대전에서 400여명을 살상했다. 이어서 천수평전투, 어랑촌전투, 맹개골전투, 만기구 전투, 쉬구전투, 천보산전투, 고등대전투 등 26일까지 6일간 10전 10승을 거둔 치열한 전투였다.

특히 어랑촌전투에서 김좌진부대가 위기상황에 처해있을 때 홍범도 연합부대가 맹렬하게 공격하여 일본군을 섬멸한 것은 연합부대의 면모를 보여 준 중요한 전과이다.

임시정부 군무부에 보고된 전과는 연대장 1인, 대대장 2인 등 1,254명을 사상하고, 진리품은 기관총 4정, 소총 53정, 기병총 31정, 탄약 5천발 등을 노획하였다.

일제 정보기관은 홍범도가 “섬멸”의 대상이 된 적장이지만, 마음속으로는 호걸풍의 인품과 지략을 높이 평가하고 홍장군의 전술을 연구하였다. 홍장군은 봉오동전투에서 국민회의 최진동 부대와 연합할 때 최진동의 아래 지위에, 청산리전투에서 독립군이 통합할 때 서일의 아래 지위에 앉은, 부하들로부터 “하느님처럼 승배 받은 인물”이었다.

그 동안 청산리 대첩의 실상이 왜곡된 것은 초대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범석의 자서전 “우등불”과 증언에서 자신의 업적을 과장하고 홍범도가 도망치다가 때죽음을 당한 것처럼 왜곡한데서 기인하였고, “한국독립운동사(대한홍보사 1983)에는 청산리대첩에서 김좌진과 이범석이 주역이고 홍범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6·25전쟁을 계기로 극단적인 반공정신이 작용하면서 홍범도가 러시아 홍군에 참여했고, 공산당에 입당했다는 행적을 문제 삼아 철저히 말살한 것이다.

1980년대 후반 이념대립이 완화되면서부터 신용하(이화여대 석좌교수), 장세운(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박창욱(연변대 교수) 등 학자들이 왜곡된 부분을 밝혀내고, 당시 전황과 일제의 정보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청산리전투의 주역은 홍범도라고 결론지었다.

봉오동 전적지 비문



〈1993년 건립 전적지비 전문〉



〈전적지비 전면〉



〈수남촌 마을 전경(도로)〉



〈수남촌 마을 전경(가옥)〉



〈봉오골 저수지 전경〉



〈봉오골 저수지 뚝〉

(사진 제공 : 광승지 연변과학기술대학 교수)

〈홍범도장군 저서 소개-2〉

“이동순 민족서사시 홍범도” 서평

청산리전투와 봉오동 전투의 주역은 홍범도 장군



영남대 이동순 교수(64, 국어국문학)는 “민족서사시 홍범도”를 필생의 작품으로 구상하고 80년대부터 미국 일리노이 시카고대학에 유학하면서, 그 기간에 자료를 모으고 장편서사시를 집필하였다. 민족서사시 “홍범도”는 5부작 전 10권으로 출간된 이 책은 1910년 일제 강점 이후 만주 일대에서 평생을 독립운동과 후진양성에 바친 무장항일투사 여천 홍범도 장군(1869~1943)의 일대기를 담고 있다.

이 교수는 “홍 장군이 봉오동전투, 청산리전투 등 독립투쟁 사상 최대 승전을 이끌어낸 맹장임에도 불구하고 계급갈등과 사상대립으로 왜곡, 폄하된 평가를 받은 대표적 인물”이라며 “그의 업적과 생애를 재조명해 근대사의 가려진 진실을 되찾으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순의 〈홍범도〉는 1900년대 항일무장투쟁 역사를 생생하게 복원시켰다고 할 수 있는 작품이다. 2003년도에 출판된 이 민족서사시 홍범도는 이동순의 자서(自序)를 통해 “잠자리에 누워서도 홍범도만을 생각했고, 벽에 그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영적대화를 시도했다.” 한다.

홍범도에 미쳐 지낸 지난 시간을 추억하며 “내 혼신의 힘과 능력을 쏟아 부어 홍범도 장군의 위대한 생애를 문학적으로 부활시키고 싶었다.”고 출간의 변을 밝혔다.

이 책은 파란만장한 홍범도 장군의 일생을 평이한 서

사시어로 해석하고 재조명하고 있다. 특히 제7권에서 봉오동전투와 제8권에서 청산리 전투를 다루하면서 홍범도장군이 주도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 서사시 작품은 홍범도라는 한 영웅적 의병장의 생애를 통해 새롭게 정리된 한국현대사의 재구성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종전의 현대사 자료들은 청산리 전투에서 홍범도장군의 활동을 완전히 소외시키고 있지만 실제의 자료와 증언을 통해 판단해 볼 때, “이 역사적 승전은 홍범도 장군을 중심으로 마침내 쟁취되었다는 새롭고 분명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히고 있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전투의 주역은 홍범도 장군임을 실증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동순에 의해 부활된 홍범도 장군은 어떤 사람일까? 1868년 평양에서 태어난 홍범도는 사냥과 광산노동을 업으로 살아가던 평범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1907년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번져나간 항일의병봉기는 홍범도의 애국적 열정을 자극했고, 그해 11월에는 갑산지방 사냥꾼들의 총포를 회수하러온 일본군을 수차례의 유격전을 통해 섬멸한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에는 만주로 건너가 독립군을 양성하며 본격적인 무장독립운동에 들어간 홍범도. 1920년에는 항일무장투쟁사에 길이 남을 봉오동전투를 수행함으로써 조선 민중들에게 그 이름을 알렸다. 청산리대첩에는 김좌진의 북로군정서군과 함께 독립군연합부대 사령관으로 참전해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대한독립군단과 고려혁명군관학교 창설에 주도적 역할을 하며, 후진양성에 힘쓰며 끝내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해방을 2년 앞둔 1943년에 이역만리 카자흐스탄에서 서거하셨다.

홍범도장군은 서민출신으로 조실부모하여 가진 고생을 하며 나라로부터 혜택을 받지 않았지만 빼앗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아내와 두 아들을 바치면서 무장항일투쟁을 한 분이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살다간 홍범도장군의 일생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이동순 시인의 끈질긴 집념과 정열로 탄생시킨 〈민족서사시 홍범도〉를 읽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민족혼과 애국심을 되찾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리:홍성덕)

임원동정

이종찬 이사장



이종찬 (재) 우당장학회 이사장은 11월 17일 서울상동교회에 우당 이회영선생 순국82주기추모식과 장학금 전달식을 주재하고, 이어 덕수궁 증명전에서 우당선생 6형제 전시회인 “난앞으로 칼을 얻다”을 개막하였다. 이 전시회는 내년 3월 1일까지 계속된다.

김유진 고문



김유진 전 경주김씨종친회 회장은 11월 28일 종친회(회장 김원) 회의를 개최하여 일성 김경천장군기념사업회를 결성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김경천 장군은 “한국의 나폴레옹”이라는 별명을 가진 러시아 연해주를 기반으로 활동했던 백마를 탄 전설적인 영웅이다.

조성우 고문



조성우 전 민화협 의장은 11월 7일 경기도 연천 공설운동장에서 ‘2014 국제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의 3개팀과 북한,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4개 나라 6개 유소년 축구팀이 참가한 대회에서 북한이 우승하여 직접 시상하였다.

홍성덕 상임이사



홍성덕 국민대 법무대학원 강사는 지난 10월 17일 햇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 콘서트홀 정기음악회에서 부부가 출연하여 이태리가곡과 아리아를 연주하였다.

김창환 감사



김창환 법무법인 참 대표변호사는 11월 1일 (사)국학원과 인성회복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으로 취임하여, 앞으로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일에 전념한다고 한다.

김삼웅 자문위원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 관장은 11월 17일 우당선생 서거 82주기 추모 <난앞으로 칼을 얻다> 전시회에서 추념사를 하였고, 11월 28일에는 심산 김창숙선생기념사업회 주최 학술회의에서 <파리장서운동과 심산 김창숙> 주제 강연을 하는 등 왕성한 학술 활동을 하고 있다.

류병균 이사



류병균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상임대표는 지난 10월 10일(금)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유라시안네트워크,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의 유라시안네트워크 사업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시행된 이번 학술회의는 몽골 국립대학교와 공동주최로 몽골 외교부 국제회의실에서 약 100여 명의 청중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황원섭 이사



황원섭 이사는 독립운동사교육연구회(서울시 교육청 연구단체) 후원회장으로 11월 20일, 우당기념관에서 연구회 2014년도 4/4분기 강좌로, 최현우(동명고 교사)등 회원들이 공동 연구한 고등학교 교과서 “한국사”의 독립운동사 부분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를 발표하도록 후원하였다.

문준진 사무총장



문준진 총장은 그동안 기념사업회 행사를 일정한 장소에서 개최하여 한정된 인원만 참가함으로써, 홍범도장군 기념사업의 저변확대가 어려웠고 홍보에도 문제가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념행사를 대학교와 협의하여 젊은 층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도경 여성국장



김도경 한국여성문예원 원장은 오는 12월 5일 오후 5시에 충무아트홀 컨벤션 센터에서 제6회 서울문학축제를 열고, 이어서 제9회 중구민 시낭송대회를 주최한다. 많은 회원들의 참여와 성원을 바라고 있다.

박재욱 사무국장



박재욱 SL파트너스 대표는 제29기 경영지도사(재무관리분야) 시험에 최종 합격하여 12월 20일까지 실무수습을 받고 있다. 경영지도사는 국가가 지정한 전문자격사로, 중소기업 경영전반을 종합 진단하고 기업경영 지도와 자문업무를 수행한다.